

시민센터 설립을 위한 투쟁의 밤 경매의 밤

2006-12-12 8:00 PM 상암리야노 2층 문화회관

안녕하세요!

시민사회가 일대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동부리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센터와 동부리 재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망한 시민사회를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을 실어줄 나뭇 가지 크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이 사회개혁 및 호랑중심의 활동에 치중하면서
시민사회 내부다지기에 소홀했던 위기적 정황을 돌출하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부리에 희망을 걸며 지역적 호랑중심으로 인도를 구출에
나선 것은 뜻깊은 것으로 생각해 마땅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모임은
추진위원회가 인사물건관리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필요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지극히 함께 하고 모든 분들이
각자의 할당으로 역량 대려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하고 기대합니다.
그럼에 대해 앞으로 살리는 바람이 없게 되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리고 있는 지역공동체사회 건설의 성공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력 공공부문의 지원 그리고
민간재판 및 기업사회 공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추진중인 시민센터와 문화재 재단은
시민사회운동이 힘있게 기업의 지원을 받는데
독자적인 자립성을 유지하며 <주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다음 및 기공의 시민사회간의 정립되며 영향을 미친
 <중간기구 (Intermediary)>로서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이치는
 일찍부터 작동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인프라임.

중간기구는 시민운동이 필요로 하는 동력으로서의
 자금조달, 정보제공, 인재육성, 관리배우 및 세제혜택 등의
 기능을 수행해오며 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운동체의 자부심 대는 Program의 리한
 공간제공도 부족하고 있음.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미국인 영구재단은
 대개의 경우 지역재단이나 민간공익재단들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재판의 투명성 기증금관리 부분은 집중하고 있는데
여타리제도는 시민운동체제의 편차나 수단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는데 그이후는
활동위운동체제를 지원해야 하는 <중간기주>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중간기주가 독립노선을 자체적으로 확장 이행하려면
2002년의 한계에 활동위운동체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친김이 또 한미대는 후계자라면
우리나라 시민사회에 집권을 갖는 한미대
후진위조직이 이미 논의하니까 아직까진
세련과 재판의 심판후진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하는
관제들을 갖기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주도의 산업구조화에서
 시민참여형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 중앙과 지방에서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민간기부금을 걷어내고
 있는 현실에서 중심지 재단이 경쟁할수 있을까?

추진중인 중앙기부가 정부당국 기업을 위한 지원에 받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기부금을 위한 <혜택> 제정이 가능한가?

이것도 주체정부로의 시민운동 관련 정부나 세제
 우리의 기부문화에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바라볼 것이 없는 한계로 움직이지 않는 정부 지원이나
 그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지원에 대한 민간 정부
 있을까? 등의 현실정황이 우선적으로 안정이다.

때처럼 오늘 모임에 임명부의 수장이신 임채경 중회회장님
이 함께 해서 기쁘고 소원을 안고서 하는것은
아름답고 행복 합니다.

21세기는 시민이 세상을 바꾸는 세기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자양분의 사회적 재원이
더부러 있는 지역사회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이 열대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좀 많아 리우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언제나 있어도 해야하는 일

<미래의 리우>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시민사회원리원리 추진위원회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합리적인 추진을 바랍니다.